

미노라

가무도
우리

가 소리를
듣지 않았었다. ■

오 아무도
우리

모
가 소리를
듣지 않았었다. ■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 새벽 여섯시 반,
둘째 아이 이름을 대서
문을 열었더니
우르르 물밀 듯이 들어왔다. ”

1.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
2. 공포감과 위압 속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3.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허위고지로 시작
- 2) 영장의 형식적 제시
- 3) 고립된 상황
- 4) 참관권 무력화
- 5) 법적 권리 훼손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허위고지로 시작
- 2) 영장의 형식적 제시
- 3) 고립된 상황
- 4) 참관권 무력화
- 5) 법적 권리 훼손

“ 송파경찰서에서 000(둘째아들 이름) 학생 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다시 입고 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 주인집에 밑에서 물이 샌다고 하니까 문을 열었는데, ...수사관들이 뛰어 들어 왔어요. 속옷을 안 입은 잠옷 바람 상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싶으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방 안에 열 다섯 명이 뛰어 들어 왔죠.”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허위고지로 시작
- 2) 영장의 형식적 제시
- 3) 고립된 상황
- 4) 참관권 무력화
- 5) 법적 권리 훼손

“ 압수수색 영장을 봤어요.
RO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RO가 뭐냐,
RO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라고 신경질을 확! 내는 거예요.”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허위고지로 시작
- 2) 영장의 형식적 제시
- 3) **고립된 상황**
- 4) 참관권 무력화
- 5) 법적 권리 훼손

“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싶다고 했는데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 6시 30분에 들어왔는데
8시 30분 정도 까지 아무도 주변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받는 걸 모르고 있었죠. ”

“ 지인들이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에게는
내려갈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이야기했어요. ‘수사에 협조해라. 그래야
압수수색이 빨리 끝난다.’라고 했어요. 비협조적이어서
압수수색이 길어진다는 이야기,
변호사를 불러 봐야 다룰 거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굉장히 억압을 많이 했죠. ”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허위고지로 시작
- 2) 영장의 형식적 제시
- 3) 고립된 상황
- 4) 참관권 무력화**
- 5) 법적 권리 훼손

“ 저는 이것과 내란음모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설득을 했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여기 서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거냐”하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 압수물품과 목록을 대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서명을 먼저 하고 확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냐 항의를 했지만 막무가내로 먼저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허위고지로 시작
- 2) 영장의 형식적 제시
- 3) 고립된 상황
- 4) 참관권 무력화

5) 법적 권리 훼손

(1)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 압수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적으로 복사가 가능한데, 처음에 ... USB 등... 그냥 다 통째로 복사했죠. 그에 대해서... 설명 자체도 없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통보도 없었죠. 나중에 변호사가 항의를 하니깐 그 이후부터는 물어보는데 그 전에 것을 파기하지를 않더라고요. ”

“ 변호사님 본인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하신 거예요. 이 기계를 압수 수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수사관이... 입다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군포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을 요청 했어요. ‘변호사를 긴급 체포해 달라. 이 사람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허위고지로 시작
- 2) 영장의 형식적 제시
- 3) 고립된 상황
- 4) 참관권 무력화

5) 법적 권리 훼손

(2) 공소사실과
무관한 물품

노래CD

우표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녹화본

아들이 쓰고 있는 영화 다운 자료

옛날에 쓰던 핸드폰

통합진보당의 공식자료집

교보문고에서도 살 수 있는 책들

6.15 행사 공연상장과 응원피켓

국정원 기념품 수저세트

민중가요 노래책

『조선말 사전』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기본권에 대한 존중 부재
- 2) 사찰 사실의 암시와
노골적 조롱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기본권에 대한 존중 부재
- 2) 사찰 사실의 암시와 노골적 조롱

“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의심하면서 주민번호로 신원확인을 하고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 때 제가 직장을 새로 들어가서 출근을 해야 했는데 못했어요. 자기들이 저 대신 ...통화를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아파서 못 간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원 직원이 주민번호를 대라고 하면 직장에 전화 할 수 없잖아요. ”

“ 남편은 속옷차림이었고, 저도 여름원피스에 상의 속옷은 안 입고 ... 속옷 입으려고 화장실 들어가려니까 여경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피의자도 아닌데. ”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기본권에 대한 존중 부재
- 2) 사찰 사실의 암시와
노골적 조롱

“ 저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이러더라고요.
어제는 어디 들어가시대?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미행을 했다는 걸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

“ 이거 왜 가지고 가냐 그러면 ‘아 당신이 했던 말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죄명에 추가해주겠어’라든지.
마지막에는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언론과 이웃주민에게 노출
- 2) 수사 인력, 경비 병력 과도 동원
- 3) 압수물 과대 포장
- 4) 압수품 고의 누락과 언론 보도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언론과 이웃주민에게 노출
- 2) 수사 인력, 경비 병력 과도 동원
- 3) 압수물 과대 포장
- 4) 압수품 고의 누락과 언론 보도

“ 언론이 집 바로 앞에까지 카메라 가지고 와있고,
경비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 하고,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이야기 하고.
동네에 불구경난 듯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말을 한 카메라기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지만,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고, 집 호수도 찍고. ”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언론과 이웃주민에게 노출
- 2) 수사 인력, 경비 병력 과도 동원**
- 3) 압수물 과대 포장
- 4) 압수품 고의 누락과 언론 보도

“ 진짜 새까만 차량이 몇 십 대 와 있었고, 2차 때는 압수 수색 영장이 집사람 거였는데 이미 1차 때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가고, 2차 때는 그때보다 많은 병력을 끌고 와서는 압수수색도 안 했대요.”

“ 제가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니까... 안 열면 소리 지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했더니.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딱 이렇게 크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2층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집인데도.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 두드리시지 말아라.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언론과 이웃주민에게 노출
- 2) 수사 인력, 경비 병력 과도 동원
- 3) 압수물 과대 포장**
- 4) 압수품 고의 누락과 언론 보도

“ 저희 집에서 나온 게 없으니까. 이제 퇴거를 하는데 MBC가 딱 오는 거예요... 국정원 그 박스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쓰레기만 잔뜩 담아요 거기다가. 그 박스가 원래 엄청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 썼던 쓰레기 뭐 이런 거 막 넣는 거예요. 고무장갑 같은 거. 저희 집 압수물은 조선말 사전하고 우표 한 장 넣고는. 달랑 그거 두 개 데 들고 나갈 때는 엄청 커 보이잖아요.”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1. 헌법, 형소법 상 권리 침해
2. 공포감과 위압
3. 인격권, 무죄추정 원칙 훼손

- 1) 언론과 이웃주민에게 노출
- 2) 수사 인력, 경비 병력 과도 동원
- 3) 압수물 과대 포장
- 4) 압수품 고의 누락과 언론 보도

“ 애기아빠가 ...평양인가...두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경제인 협력, 사업할 때 그런 일로 갔다 왔고,
한번은 역사 답사 그런 걸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다 온 사진들을 주욱 늘어놨더라고요.
아기아빠가 ‘그 사진엔 당신네 직원들도 있다’ 그랬더니...
자기네 직원 나온 사진들은 빼놓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8월 28일 이후에 뉴스에 아기아빠가
‘밀입북’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사상 검열
- 2) 자백 유도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 3 적법절차 위반

- 1) 사상 검열
- 2) 자백 유도

“민중가요 책 ... 가사를 죽 읽어보니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 집에 있던 <전쟁론>이나 <혁명의 역사>. 사실 일반적인 책이잖아요? 책에 ... 어떤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사상이다,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당신은 탐독하고 연구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든가. 민중가요 ... 몇 개 딱 집어서 구절을 가지고 “이게 이적표현물이고 당신은 이것 탐독했다.”는 등...”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mp3에 노래가 있었거든요. 일단 노래를 다 틀어줘요. 그 다음에 가사를 다 불러줘요. 한 곡 한 곡 가사를 다 불러주고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아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적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냐? 안하냐? ...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사상 검열
- 2) 자백 유도

검사가 전화해서는 위로하는 척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서 “남편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겠다.”면서 오라고 회유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시기가 한동근 씨한테 검찰이 회유했던 시기였어요. 부인도 회유해서 자백을 유도하려고 한 거죠.

당시 제가 4월 3일 보석으로 나와 있던 기간 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너한테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겠냐?” “부인이 구속되면 어떻게 하겠냐?”며 계속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랬죠.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1)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2) 인격권 침해

3) 신체의 자유 침해

4) 장애인, 아동 인권침해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 2) 인격권 침해
- 3) 신체의 자유 침해
- 4) 장애인, 아동 인권침해

- (1) 사적 통신기록
- (2) 일상 사생활

저에 대한 SNS, 사생활 다 수사하고 있으니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으니.

SNS에서 생각의 자유가 있으나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니.

그걸 다 증거라고 갖고 왔더라고요. 한 100개를.

제가 블로그, 페이스북에 쓴 거, 어디 댓글 남긴 거.

그걸 다 꺾어 맞추는 거예요.

‘가상 속의 지하조직 인물과 네가 쓴 글,

네 생각이 동일한 인물이다.’

모든 제 글을 복사한 게 100개가 넘더라고요.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 2) 인격권 침해
- 3) 신체의 자유 침해
- 4) 장애인, 아동 인권침해

- (1) 사적 통신기록
- (2) 일상 사생활

전날 제가 혼자서 마음이 안 좋아서 산에 다녀왔어요.
들어가자마자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듯이
“산이 참 좋죠? 산에 자주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주말에 가끔 간다.” 라고 대답 했더니
“그럼 두 분이 따로따로 다녀오셨나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들리기로는 ‘네가 산에 다녀온 것 알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상반신 이상이 보이는 통유리 화장실이어서
바깥 것을 쓰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들어가 보니 욕조가 있었어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이 화장실을 쓸 테니 모두 다 나가라.”고
요구해서 싸움을 했어요.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 3 적법절차 위반

- 1)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 2) 인격권 침해**
- 3) 신체의 자유 침해
- 4) 장애인, 아동 인권침해

- (1) 조롱**
- (2) 비하 폭언

감정을 자극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들 들어서 ‘당신 나이 먹어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말도 하고.

부모님 이름, 하시는 일, 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언니만 아무것도 안 하면 평안한 집안”이라고 했어요.
그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 3 적법절차 위반

- 1)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 2) 인격권 침해**
- 3) 신체의 자유 침해
- 4) 장애인, 아동 인권침해

- (1) 조롱
- (2) 비하 폭언**

조사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부르면서 의자를 50cm 정도 뒤로 빼서
앉았다는 이유로, “000! 앞으로 앉아”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부인과 결혼한 것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거 아니냐!”

“부인과 공부를 하는 것도 ...주체사상을 위한 게 아니었냐!”는 등 인신공격이나

“네가 이제희보다 나이가 위인데 왜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냐,

쪽팔리지 않냐!”는 등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하거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를 보고

“부부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박근혜 정부가 어떻고 이명박 정부가 어떻고,

...혁명조직 관계이기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계속 하죠.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 2) 인격권 침해
- 3) 신체의 자유 침해**
- 4) 장애인, 아동 인권침해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요.
건강검진을 한대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 피의자 동의부터 시작해서 설명도 있어야 되는 거죠.
... 세 번 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장 나가라고,
...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제일 끔찍하더라고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몸을 맡깁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주사라도 놓는다고 하면
주사가 무슨 주산지 어떻게 알겠어요?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 2) 인격권 침해
- 3) 신체의 자유 침해
- 4) 장애인, 아동 인권침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큰애가 많이 아픈 거 같다고 하면서 애 아픈 것을 계속 거론하더라고요.

“애 병명이 뭐냐, 자기들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앰블런스를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 취한 것 알고 있냐,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 문제 없었냐?”

제가 계속 대답을 안 하니깐 갑자기 하는 말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애가 어떻게 되던지 상관없다는 거냐?”고 했어요.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묵비권 형해화
- 2) 피의사실 사전 공표
- 3) 위법 및 탈법 수사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묵비권 형해화
- 2) 피의사실 사전 공표
- 3) 위법 및 탈법 수사

...묵비를 하고 있는데 폭언이 난무하기 시작했죠.
“잠이 오냐. 이렇게 할 거면 쉬고 하겠다. 차라리 쉬고 하자.” 라고 하고,
묵비를 하니깐 “자신이 없으니 그런 거다.”라고 비꼬기 시작했고
“차라리 침대도 있는데 한 시간 주무시고 하자.”고 했어요.

제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자
그 사람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해지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열이 받아서 잠깐 쉬었다 해야겠으니 기다려라.”라고
하고는 나갔어요. 그리고는 한참동안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내가 마음을 식히고 들어왔으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자.”하고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또 다시 얘기를 하고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다시 나갔다 오겠다.”고 해요.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묵비권 형해화
- 2) **피의사실 사전 공표**
- 3) 위법 및 탈법 수사

이 녹취록의 작성주체와 녹취주체 등과 관련해
이 기자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원본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기들이 이미 짜놓은 틀 안에서 왜 RO에 가입했냐?
RO가 뭐냐 이것도 아니고 RO에 왜 가입했냐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묵비권 형해화
- 2) 피의사실 사전 공표
- 3) **위법 및 탈법 수사**

- (1) 허위 증거
- (2) 가족 고지
의무 위반

저도 수술을 한 경험이 있고 남편도 건강이 안 좋아서
통째로...카페에서 알집으로 된 거 다운받아 놓은 건데,
그게 의학 책으로 치면 200 ~ 300건 되는 자료인데
요만큼쫘(책 반쪽정도) 되는 거예요.

‘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한 재료안내, 면봉으로 찍어서 쓰고’
이런 치료용으로 된 내용인 거예요. 폭발위험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지만,
그건 건강용으로 면봉에 묻혀 쓰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황당했던 건 그 후에 국회 정보위에 남재준 국정원 원장이 와서
이걸 폭파실험했던 동영상을 보여줬대요.

자기들이 특수부대원 모아서 실험을 했는데요,
근데 언론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통합진보당 RO 폭파 동영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묵비권 형해화
- 2) 피의사실 사전 공표
- 3) 위법 및 탈법 수사

- (1) 허위 증거
- (2) 가족 고지
의무 위반

지금 우리 아빠 잡혔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하니깐 맞다고.
지금 어디 있냐고. 아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일 거라고.
언제 볼 수 있냐고 하니깐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남부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서에서 면회신청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 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1.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부끄럽고 민망한 인권침해
2. 질리지 않는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와 일상의 파괴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보도현장
- 2) 중립성 객관성 포기
- 3) 반론권 정정보도 불가
- 4) 선정적 보도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보도현장
- 2) 중립성 객관성 포기
- 3) 반론권 정정보도 불가
- 4) 선정적 보도

- (1) 인정받지 못한
취재거부권
- (2) 사생활 침해

가시라고, 우리 안 찍었으면 좋겠다.

나는 취재 거부권, 나는 취재를 거부한다.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막

팍팍팍 찍고 그러더라구요.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보도현장
- 2) 중립성 객관성 포기
- 3) 반론권 정정보도 불가
- 4) 선정적 보도

- (1) 인정받지 못한
취재거부권
- (2) 사생활 침해

...전경 차, 보도차량들이 저희 동네에 짝 깔려가지고
주차라인마다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일 났는줄 안거예요.
“이게 뭐하는 거냐?” 했더니 기자, 경찰에게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지나던 사람들과 동네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죠.
사진 찍고 그러니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 같은 분위기가 돼서.
기자들한테 철수해달라고 요청해도 안하고 버티고 눈도 안 마주쳐요.
케이블 TV에 보도가 하루 종일 나와서
이십년 전에 연락 끊긴 대학 동창이 전화 와서
“그게 너니?” 이려고 그런 전화 받느라 바빴어요.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증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보도현장
- 2) 중립성 객관성 포기
- 3) 반론권 정정보도 불가
- 4) 선정적 보도

- (1) 실종된 무죄추정 원칙
- (2) 취재조차 없던 허위, 왜곡보도

호송차가 들어오면 쇠문을 내리는 데 ... 거기 '사진촬영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언론이 개떼처럼 붙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 거길 가족들이 막는데
기자들이랑 실랑이가 엄청 있는 거죠. ... 그리고 그게 그대로 기사에 났어요.
가족들이랑 막고 있는 게 '사진 찍으면 안 돼' 이런 제목으로.
근데 참 카메라가 총이더라구요. 못하게 막으니까 저를 막 친 거예요.
... 이런 게 공판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카메라 플래시 그런 거.
재판정 들고 날 때도 막 찍어대는 것. 거기서 가족의 인권 이런 건 없는 거죠.

정식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 거의 90프로 이상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이 억울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아닌데 기라고 하니까.
<한국일보>는 출처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국정원과 단어 하나 틀리지 않은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했잖아요.
이후 270 몇 곳인가 고쳐졌지만 그거에 대해 정정보도한 적은 없구요.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보도현장
- 2) **중립성 객관성 포기**
- 3) 반론권 정정보도 불가
- 4) 선정적 보도

- (1) 실종된
무죄추정 원칙
- (2) **취재조차 없던
허위, 왜곡보도**

저는 이석기 의원의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되던 날, ... 거기(5월 12일 강연회)에 참가했었던 저 외에 4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전 평화를 호소하자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언론이라든가 기자라든가...에 의해서 저에게 그날의 사건의 실체, 그 날 강연의 내용의 실체를 알고자하는 요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김재연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5월 모임에 안 갔다고 했다가 갔다고 번복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말을 바꾼 게 전혀 아니죠. “너 내란음모 하는데 갔어?”라는 물음에 “아니 안 갔어.”라고 대답한 거고, “5월 12일에 강연회 했는데 갔어?”라는 물음에는 “네. 갔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 말 바꾸기 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죠.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중복'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보도현장
- 2) 중립성 객관성 포기
- 3) 반론권, 정정보도 불가
- 4) 선정적 보도

기사 하나하나를 다 보지는 못해서 정정요청을 하지는 못했고, ...
나중에 거기 한의원에 대한 오보가 계속 쏟아졌어요. ...
조합 자체에서 정정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압수수색 이후에 뉴시스와 어딘가 계속 전화가 오기는 했어요. ...
나중에 다른 가족이 말하기는 자기가 말한대로 안 나오더라...
그게 무서워서 다음부터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KBS 9시 뉴스에서 ...사제폭탄제조법이 있었다고 보도됐죠...
본인이 마치 가필해서 메모한 것처럼 9시 뉴스에 다 나갔죠.
저희가 바로 그걸 가지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했죠.
그리고 KBS에 전화해서 보도가 사실 무근임을 전달하고,
앞으로 반영될 9시뉴스에서 진보당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KBS 측이 거부했죠.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중복'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보도현장
- 2) 중립성 객관성 포기
- 3) 반론권, 정정보도 불가
- 4) 선정적 보도

국회 정보위에 남재준 국정원 원장이 와서 이걸 폭파 실험했던 동영상을 보여줬대요. ...

근데 언론에는 ... '통합진보당 RO 폭파 동영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선정 보도들. 이런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열어보면 "하려고 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날 브리핑을 하는데 '통합진보당에서 폭파하려고 했던' 이라고 얘기한 거죠, 대체 누가 하려고 했단 거예요. 폭파에 대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건 수사과정에서도 증거채택 조차도 안됐어요. 쇼한 거거든요. 종편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언론보도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종북' 여론과 공포 사회
- 2) '종북' 겨냥 마녀 사냥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1) '종북' 여론과
공포 사회

2) '종북' 겨냥
마녀 사냥

... 거의 매일 반전평화 서명운동을 하고 지역 시민단체들과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이후, 거리에 서명판을 들고 나갔는데 '빨갱이'라고 욕하고 침 뱉는 등의 일이 있었어요.

사실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야 이러다가 백색테러도 있겠구나... 언론 논조를 보면 '저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다가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죠.

언론보도를 처음 접하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정희 대표의 해명 기자회견 등이 ... 기사들이 다 왜곡되는 것을 보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되도록 모르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언론 왜곡보도의 힘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구요,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법원 앞에 보수단체 플랑에 '화형시켜라.'는

이런 것들도 달리고 그러거든요.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종북' 여론과 공포 사회
- 2) '종북' 겨냥 마녀 사냥

- (1) '종북' 낙인
- (2) 자기검열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당과 '빨갱이' 정당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빨갱이로 낙인 찍히는 거죠. 빨갱이는 종북으로 바뀐 것 밖에 없고. 종북의 낙인효과는 오래가거든요. 좌절감은 정치적 사형선고예요. 낙인이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논쟁으로 가능하지만 정치적 복권은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고민이죠.

남북관계가 누가 얘기하면 경제이고, 누가 얘기하면 종북이 되는 건데. ... '너희가 말하는 건 북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의식이 깔려있는 발언'이라고 얘기하고 보란 듯이 지역에서는 '빨갱이 친북좌파' 세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저께인가 보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남북경제평화 문제하고 새누리당이 말하는 공약이 똑같아요. 정책방향도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제시하면 종북으로 이용해먹고 자신들이 말할 때는 더 이상 대안이 없으니까 그건 경제라고 하잖아요.

언론과 사회적 배제

-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 2. '종북' 논쟁
-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종북' 여론과 공포 사회
- 2) '종북' 겨냥 마녀 사냥

- (1) '종북' 낙인
- (2) 자기검열

... '도대체 뭘 가지고 종북이라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진보당원인 이유는 아이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종북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이 방에 지구본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이가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무서워서 못했어요.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누가 나를 종북이라고 부를까봐. 그래서 "못가, 가면 안 돼, 못가." 어디까지가 종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꿈꾸지 말아야 하나. 내 아이에게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줘서는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쪽 살아가야 하나. 참 지겹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이웃과의 관계 변화
- 2) 가족 관계의 어려움
- 3) 진보운동의 비판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이웃과의 관계 변화
- 2) 가족 관계의 어려움
- 3) 진보운동의 비판

병원 사람을 평소 알고 지냈는데 “꼭 여기서 진료 받아야 되겠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병원도 같은 종북몰이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이제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연루자 내지는 같은 종북 패거리가 되는 건데,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고. 이야기라도 길게 했다가는. 왕따, 고립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사건 후에 제 차에다가 누가 ‘간첩 차’라고 써놨어요. 동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놀랐고, 되게 크게 써놨는데 섬뜩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왔다 가고 서울구치소에 고속도로 가야 해서 울면서 박박 지웠죠.

저희 2층이 세탁소인데. 거기에 보수 할머니 모임이 50명 모임이 있대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오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갖고, 저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옷 입는 거, 뭐 다 체크하고. 뭐를 어떻게 했네. 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계속 모여서 수근수근대죠. 밤 10시까지.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이웃과의 관계 변화
- 2) 가족 관계의 어려움**
- 3) 진보운동의 비판

저희 어머니가...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사건 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고, 전화기도 꺼놓으시고.
...막내 아가씨의 친정어머니가 오셨는데 “니네 오빠 때문에
내 아들까지 잘못되는 것 아니냐?”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애 낳고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평평 우시더라고요. 저희 가족 모두,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것이죠.
...하루는 미용실을 가셨는데, 종편 TV가 나오는데,
...손님들이 “저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나 봐요.
어머니가 그냥 기다리시다가 머리도 못하고 그냥 오셨더라고요.
또 그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누나는 가고 싶어 하는데 못 오게 해요. 오면 슬프고 눈물 날 것 같고 하니 ...
그런 것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센 척하고 안 가는 거 같아요.
당 활동하면서 ...남이 손가락질하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당원이라고 하면서 사는데
친척들이나 형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거 같아요.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중복'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이웃과의 관계 변화
- 2) 가족 관계의 어려움
- 3) **진보운동의 비판**

주변에서 진보운동이나 좌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근본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현상만 보는 거죠.
“왜 걸렸냐? 아직도 그러고 사냐?” 그런 거죠...
국가보안법 체제 내에서...숙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갈 문제이죠.

운동진영에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것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런 것이 가장 속상합니다.
무슨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궁금해 하는 것은
5월 모임에 갔는가, 이석기와 어떤 사이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
마치 통합진보당이 잘못된 것처럼 예단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너희가 빌미를 줘서 모든 진보를 말아먹는다.”는 시선이 힘이 듭니다.
딸이 다니는 대학의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통합진보당이 말아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 같이 싸우면 될 텐데 왜. 각자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과 사회적 배제

1. 공정하지 못한 언론
2. '종북' 논쟁
3. 사회적 배제, 일상파괴

- 1) 이웃과의 관계 변화
- 2) 가족 관계의 어려움
- 3) **진보운동의 비판**

진보운동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사회에서 우리 뿐 달린 도깨비 아닙니까?
어쨌든 진보당이 말썽을 많이 피우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통합진보당의 방탄막이가 되려고 하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낙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재네야?” 그런 시각을 가지는 거죠.

진보운동 하는 사람들조차 거리를 두는 것이 제일 힘든 거죠. 상처가 더 깊어지죠.
‘재네들은 진보도 아니야’ 하는 식으로... 억울한 거죠.

아이들이 흠치지 않았는데 흠쳤다고 하면 저항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집단 이지매 대상이었죠. 조롱의 대상.

생활상의 변화

“ 그 날 이후로
내 일상은
범죄가 되었다.”

1. 일상생활의 변화
2. 경제적 어려움
3. 직장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
4. 대인관계의 변화

생활상의 변화

1. 일상생활의 변화

2. 경제적 어려움

3. 직장, 사회활동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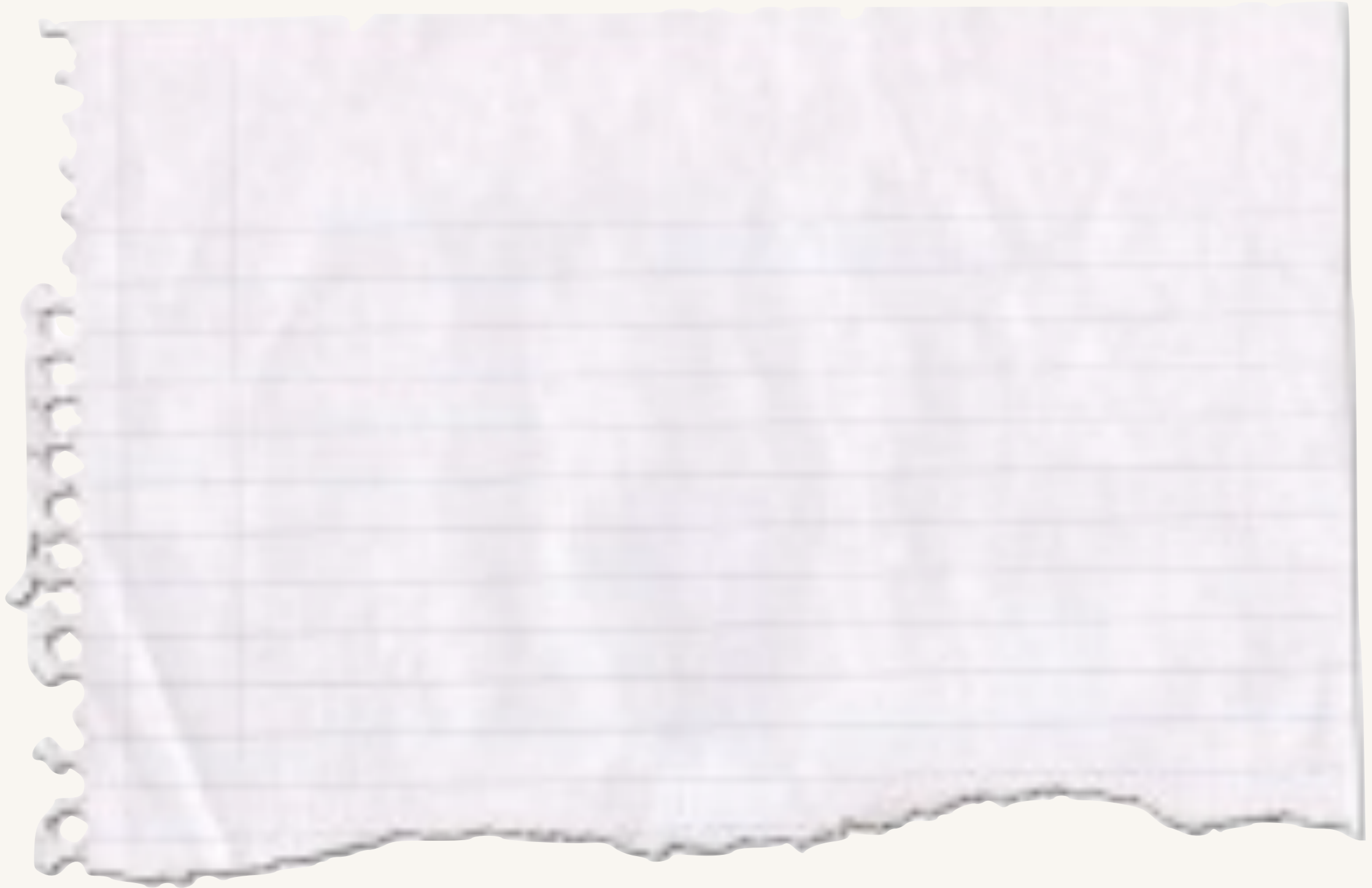
4. 대인관계 변화

1) 압수수색 트라우마

2) '내란음모' 트라우마

3) 언론 트라우마

4) '프락치' 트라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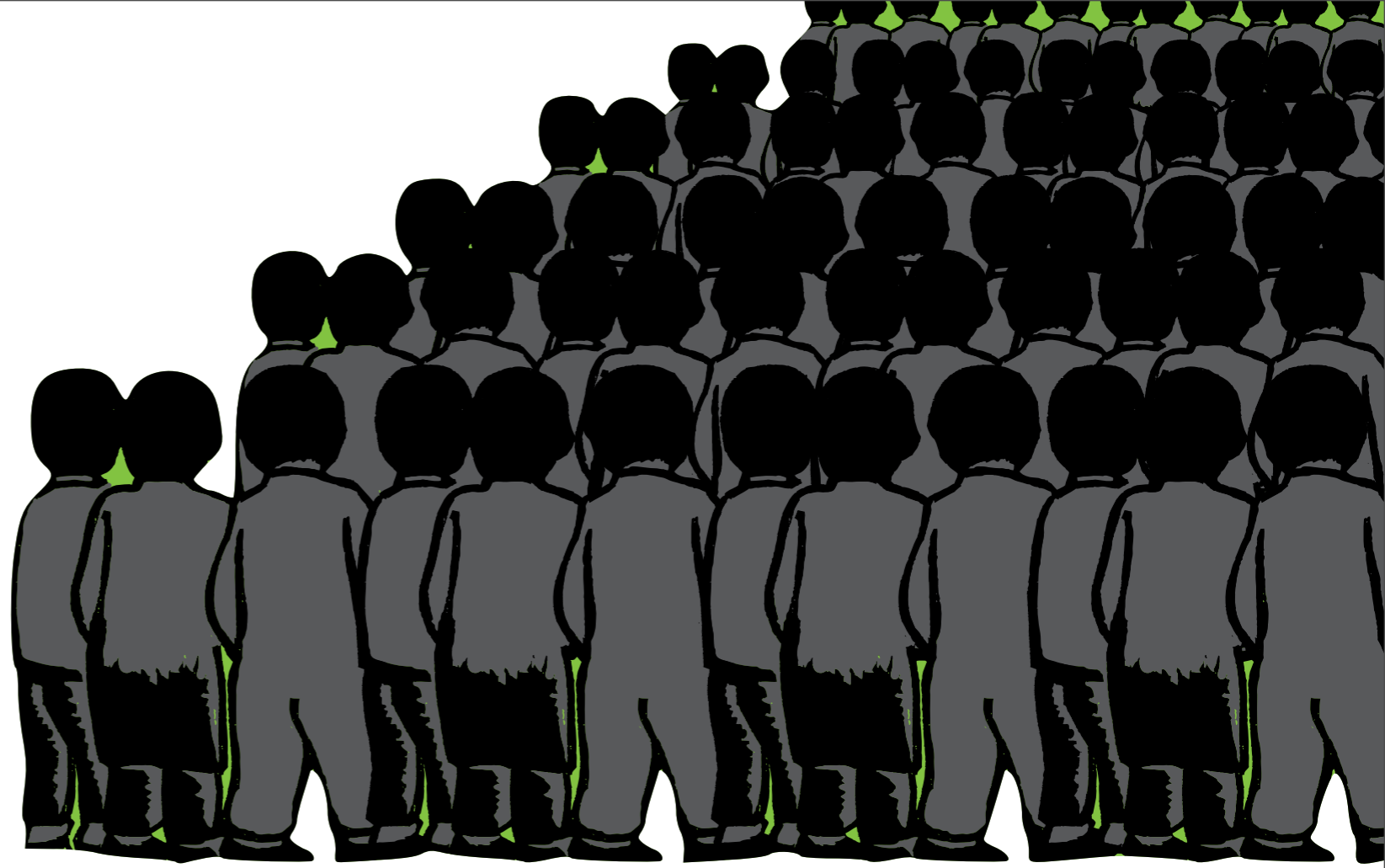


생활상의 변화

1. 일상생활의 변화
2. 경제적 어려움
3. 직장, 사회활동 어려움
4. 대인관계 변화

- 1) 압수수색 트라우마
- 2) '내란음모' 트라우마
- 3) 언론 트라우마
- 4) '프락치' 트라우마

- (1) 자기검열과 흔적 지우기
- (2) 극도의 긴장감



8월
28일

국정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 제기

이석기 의원 및 10명 대해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발부, 집행

이 중 3명 구속

9월 4일

국정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 제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홍성규 대변인 및 5명 압수수색

안소희 파주시 의원 압수수색

9월
17일

국정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 제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홍성규 대변인 및 5명 압수수색

안소희 파주시 의원 압수수색

9월
24일

국정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 제기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홍성규 대변인 및 5명 압수수색

안소희 파주시 의원 압수수색

조사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1.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3. 적법절차 위반

- 1) 사상 검열
- 2) 자백 유도

“ 송파경찰서에서 000(둘째아들 이름) 학생 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다시 입고 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

“ 주인집에 밑에서 물이 샌다고 하니까 문을 열었는데, ...수사관들이 뛰어 들어 왔어요. 속옷을 안 입은 잠옷 바람 상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싶으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방 안에 열 다섯 명이 뛰어 들어 왔죠. ”